

법 어

희망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국민과 불자 대중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푸른 기운이 도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거친 들판을 쉽 없이 달리는 말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힘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숭배의 대상으로 거룩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前生譚)에는 훌륭한 명마로 태어나 여러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타시던 말인 건척(健陟)은 카필라성의 높은 담을 훌쩍 넘어 부처님께 출가의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가 인도에서 대장경을 가져올 때는 17년간 모시며 무사히 구법여행을 마칠 수 있게 도운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은 부처님의 출가를 돕고, 오늘날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을 전할 수 있도록 큰 공덕을 세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삼장법사를 모신 말이 불경을 등에 지고 돌아와 큰 환대를 받자, 17년 동안 방앗간에서 방아를 돌렸던 당나귀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낸 말을 무척 부러워 하였습니다. 그 때 말은 당나귀에게 ‘나는 현장대사님의 원대한 목표에 따라 그 길을 걸어 광활한 세계를 개척했고, 너는 눈이 가려진 채 평생 방아를 끌면서 한 곳만을 돌았기 때문에 이 좁은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자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새해의 새로운 다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력과 신심이 없다면 눈이 가려진채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도가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서 세워야 할 큰 서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자들이 앞장서서 나라 안팎에 화해와 상생의 기운을 가득 채우겠다는 큰 원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대화는 실종되고 대립과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언제 극한의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 불교인들이 나서서 화해와 협

력,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 또한 화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군비 증강과 영토 분쟁의 기운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과 상호 존중을 역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국가의 자존을 짓밟는 행동이 종식되고 동북아의 상호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사회의 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화된 불황 속에 구직난과 경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와 사회 각계는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세대와 경제주체, 이념과 사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서로 분열된 채 갈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역설해야 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화해와 협력, 진실과 상호 존중, 그리고 화합과 상생의 길에 우리 불교도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보살행의 실현이며, 우리 불교도가 세우는 큰 서원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생명 평화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 길은 어떤 생명을 막론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와 사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2014년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포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이면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됨에서 벗어나 밝은 희망의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삿된 것을 부수면 올바른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가르침과 같이 거짓에서 벗어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진실이 생명 평화의 길이며 진실과 화해의 길입니다.

갑오년 올 한해 이 땅에 부처님의 가피 가득하사 우리 불교 지도자들은 국민민복(國利民福)의 기운이 온 누리에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고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불기2558년 1월 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